

# 건설업 기록적 호황 업체수·공사액 꺾충

도내 기업 수 총 3,713개  
3년 동안 오름세 지속  
공사액도 1조2천억 올라  
올림픽·SOC 사업 효과

지난해 도내 건설업체 수와 공사액이 상승 곡선을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건설업체는 모두 3,713개로 파악됐다.

2014년과 2015년 건설업체 수가 각각 3,454개, 3,592개였던 점과 비교해 볼 때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인 오름폭을 보이고 있다.

덧달아 도내 건설공사액도 꺾충 뛰었다. 지난해 도내 건설공사액은 총 10조790억원으로 집계됐다. 8조8,740억원에 그쳤던 2014년 공사액보다 무려 13.6% (1조2,050억원)나 올랐다. 8.9%

의 전국 최대 하락세를 보인 전북은 7조90억원에 불과했다.

2013년 6조7,650억원에 머물렀던 건설계약액 역시 지난해 10조1,020억원까지 49.3% 치솟았다.

이 같은 건설업 호황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각종 SOC사업 추진 여파로 풀이된다. 도내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 역시 공사액이 대폭 증대했다. 업종별로 종합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총 공사액은 3조9,440억원이다. 이 중 30.7%에 해당하는 1조2,100억원이 도내 업체의 성과다. 앞선 2015년보다 2.5%나 확대됐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체 수와 건설공사액 등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은 강원도가 건설업 분야에서 기록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